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1.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제10회 ICASL 행사에 **Keynote Speaker** 및 감사패 수상을 위해 초청받은 바, 행사에 참가하여 국내외 해운·항만관련 학계, 기업간 정보교류 및 연구진흥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 및 연구 Pool 공유
- 세계 8위 컨테이너 처리 항만이자 자매항인 청도항의 치엔완 컨테이너 부두(QQCT, Qingdao Qianwan Container Terminal)와 크루즈 여객부두를 시찰하여 인천항의 운영 및 신규여객부두 건설시 참고
- 현지 국적선사 주재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중국 최대 항만인 청도 지역 물류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함

○ 일 시 : 2017. 6. 22(목) ~ 6. 23(금), 1박 2일간

○ 지 역 : 중국 청도

○ 출장자 : 남봉현 사장, 김종길 실장, 정원중 과장(현지합류)

2. 출장내용

- (국제학술대회) 중국 청도해양대학교에서 개최되는 ICASL 2017에서 우리공사 기관장(남봉현 사장님) 감사패 수상 및 기조연설 실시
- (교류확대) 청도항 컨테이너 부두와 크루즈 터미널 방문, 아울러 북중국 내 국적선사 주요 거점인 청도항 방문을 겸해 선사 주재원과의 교류를 통해 현지 물류현황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함

3. 주요 추진결과

<청도 치엔완컨테이너 부두 방문>

- 청도항은 크게 노항(老港), 치엔완(前灣)항, 황도원유항(黃島油港), 동자코우(董家口)항 4개의 구획(부두)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
- (인천항 유사점) 벌크화물 처리기능을 보유한 노항이 도심에 위치,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화물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동자코우 항만으로 전이 중

<청도 크루즈 여객부두(크루즈 모항) 방문>

- '15년 5월 29일 新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일본, 한국간 항로 위주로 크루즈 항로가 운항 중이며 동시에 대만, 러시아간 항로 개설 중
- 청도 도심 내 노항에 위치, 향후 점진적으로 여객부두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항만시설을 도심 밖으로 전이시킴과 동시에,
- 여객부두 인근에 호텔, 쇼핑몰 등 상업시설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와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임

<청도지역 국적선사 만찬 간담회>

- 산동성 내 영업 등 화물창출관련 의견 공유
 - 항권에 의한 한중항로 통제로 인해 청도↔인천간 항권이 없는 선사는 공컨테이너 리포지셔닝 등 제한된 인천 비즈니스만 수행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제한 존재

- 위해항* 등 인근 항만과 인천항간 항권이 존재하는 일부 선사는 자사, 혹은 계열사를 통해 산동지역과 인천간 영업 진행 중

* (위해항) 냉동, 냉장화물 다량 발생 중

○ 현지 애로사항 등 현안관련 의견 공유

- 청도 구항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컨테이너 반출입 관련 어려움이 있으며,
- 야적장 부족으로 인한 프리타임 확보 어려움 역시 존재

○ 인천항 이용 관련 논의

- 인천항 배후단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신항 이용과 관련, 남항 등과의 별도 운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 신항 배후부지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 인천신항 배후단지 애로 해소를 위해 LCL 물류센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부분 설명 후 향후 최대한 빠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의지 및 계획 역시 전달함

○ 기타 현안사항 논의

- 치엔완부두에서 1달 전부터 운영 중인 완전자동화 부두가 사용자인 선사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오히려 떨어진 부분이 존재하며(사유 : 부두진입 완전통제 등) 운영 정상화 시점까지 유의해서 관찰할 필요

<ICASL 2017 국제학술대회 참가>

- ICASL 주최측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여, 다양한 국적의 해양항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항의 현황과 경쟁력을 알림으로서 인천항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 IPA CEO이자 항만 전문가로서 환태평양 주요 학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향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함

4. 시사점 및 추진계획

- (컨테이너 부두시찰) 청도항 최대 컨부두인 치엔완컨테이너 부두 (QQCT)를 시찰, 자동화부두 운영 개시 등 발전 중인 청도항의 모습을 확인함과 동시에 도심 내 항만기능의 외부 이전추이 등 인천항과의 유사점 역시 확인함
- (크루즈부두 시찰) '15년 개장한 청도항의 23만톤급 新여객부두를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현재 다소 경직된 양국관계로 인해 한국간 크루즈 항로가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인천항과 청도항 간의 크루즈 항로개설 마케팅을 위한 사전 공감대를 조성함
- (선사동향 청취) 현지 국적선사 주재원들을 만나 청도항 이용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부족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의 해소를 위해 신규 조성 예정인 LCL 공동 물류센터와 향후 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알리는 등 소통의 기회를 가짐
- (ICASL 2017 참가) 중국과 태국, 호주,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 지역의 해운항만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천항을 홍보하며, 동 학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지속적 교류협력의 기반 역시 마련함. 끝.